

환상소설로서의 ‘나와 오유사마(お遊さま) 이야기’ 일고

이영희*
gomgoda21@hanmail.net

<目次>

- | | |
|--------------------------|------------------------|
| 1. 서론 | 3.2 지형의 특징 |
| 2. 스토리의 전개 방식 | 3.3 강의 특징 |
| 2.1 후설법 | 3.4 십오야의 보름달 |
| 2.2 휴지법과 정경법 | 3.5 오유사마의 얼굴-구름과 같은 존재 |
| 3. 환상적인 현상을 출현시키는 시간과 공간 | 4. 결론 |
| 3.1 고토바인의 별궁이 있었던 유적지 | |

主題語: 오유사마(oyusama), 환상소설(fantasy novel), 서술법(narration), 시간(time), 공간(space)

1. 서론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단편소설 『아시가리(蘆刈)』¹⁾는, 간사이의 이야기로, 1차 화자인 주인공 앞에 갑자기 등장한 초로의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오유사마(お遊さま)’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친 남자는 홀연히 사라져 버리는데, 이 소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 환상문학²⁾이라는 장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연구원

1) 쇼와 7년(1932년)에 쓰여진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소설 『아시가리(蘆刈)』, 텍스트는 谷崎潤一郎(1967) 『日本の文学25 谷崎潤一郎(三)』中央公論社, pp.227-260

2) 환상문학은 초자연적인 힘처럼 보이는 것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문예 장르다. 불가리아계 구조주의 문예평론가 츠베탄 토도로프가 개념을 창안했다. 환상문학은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등장인물과 독자가 망설이게 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역사적으로는 고딕물에서 파생된 것이다. 주요 환상문학 작품으로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들, 에른스트 호프만의 『잔트만』, 기 드 모파상의 『오투라』,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엠브로즈 비어스의 『헬핀 플레이어의 죽음』,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등이 있다. 현대 세계 문학에서 환상성은 매우 중요한 문학적 주제 중 하나이다. 환상 소설은 일찍이 19세기 초부터 발달해 왔지만 마르케스를 비롯한 남미 소설의 붐 이후 현대에 와서 세계적인 새로운 문학적 유행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환상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쉽지 않다. 환상이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벌어지는 비상식

갑자기 등장한 ‘남자’, 그리고 남자의 이야기 속 오유사마의 생김새, 그리고 늙지 않는 그녀의 모습, 이야기를 마친 남자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그야말로 환상과 같은 이야기이다. 『아시가리』의 선행연구에서는 다니자키의 고전취미³⁾, 여성승배⁴⁾의 연장선상이라든가, 노(能) 『아시가리』와 비교하여 몽환적 분위기를 분석한 논문⁵⁾ 등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전에는 연구한 적이 없었던 환상문학으로서 『아시가리』를 이탈리아 칼비노의 ‘일상적 환상’⁶⁾이란 측면에서 분석하고, 또 판타지성을 살리기 위한 장치로서 서술 방법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소설의 ‘때’와 ‘장소’ 설정에는 반드시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이 작품은 우선 구성에서 보면 기행문의 형식에서 액자형식 구조를 도입하여, 1차 화자인 내 이야기 중에 우연히 만난 남자가 2차 이야기자로서 아버지와 오유사마의 이야기를 한다. 남자를 2차 화자로 사용한 것은 그가 메이지의 사람으로 현대와 거리감을 느끼게 하여 환상과 같은 이야기가 가능하도록 할 의도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독자에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 또 실제로 오유사마를 만난 장본인인 그가 전함으로써 진짜다움과 감동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상적인 현상을 출현시키는 ‘때’와 ‘장소’의 비밀을 알아보고, 설정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회자되는지를 주넛의 『이야기의 언설방법론의 시도(物語のディスクロール方法論の試み)』⁷⁾에서 언설법에 관한 이론을 『아시가리』 구성에 적용해 본다. 이 작품을 말하는 순서와 ‘속도’에 따라 분류하고, 나아가 ‘때’로서의 시대, 계절, 하루 동안의 시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장소’로서 국가, 지방·지역, 지형 등을 통해 이 소설의 ‘방법’도 고찰한다.

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기 십상이며, 황당함과 동의어로 취급되는 등 여전히 정의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환상성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현대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 3) 三嶋潤子(2008.01) 「谷崎潤一郎『蘆刈』の構造-古典回帰の内実」『国語国文』77(1)、中央図書出版社、pp.1-18
- 4) 安枝蓮(2005.01) 「『蘆刈』についての一考察-永遠の女性」『解釈』51(1・2)、解釈学会、pp.27-33
- 5) Chambers Anthony著、鈴木淑美訳(2003.05) 「ひびきあうまぼろし-『蘆刈』と夢幻能の世界」『ユリイカ』35(8)、青土社、pp.208-218
- 6) 이탈리아 칼비노(Italo Calvino, 1923년 10월 15일 ~ 1985년 9월 19일)는 이탈리아의 언론인이자 소설가, 작가이다. 그는 환상 소설에 드러나는 환상을 ‘시각적 환상’과 ‘일상적 환상’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곧 연대순에 입각한 구분이기도 하다. ‘시각적 환상’에서는 시각적 압시를 부각시키고 구체화하는 것이 특징인 19세기 초 소설들이다. 시각적 괴기스러움, 마법, 흡혈귀, 에로티시즘, 도착증 등 환상적 낭만주의 요소들이 등장하며, 호프만을 비롯하여 발자크, 호손, 고골, 고티에 등의 작품이 있다. 한편 ‘일상적 환상’이란 정신적, 추상적, 심리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개인의 내면이나 악몽처럼 형체가 없고 포착 불가능한 환상을 말하는데, ‘일상적 환상’에는 에드거 앨런 포, 안데르센, 디킨스, 투르게네프, 모파상 등의 작품들을 포함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작품이 있다.
- 7) ジェラルド・ジュネット著、花輪光、和泉涼一 訳(1985) 『物語のディスクロール方法論の試み』水声社、pp.247-260

2. 스토리의 전개 방식

2.1 후설법(後說法)

이 작품은 말하는 순서에 따른 분류에서는 이야기 내용의 현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돌이켜 말하는 후설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 깊이있게 나누어 보면 이야기 내용 시간의 출발점보다 이전의 일을, 되돌아보는 외적(外的) 후설법을 사용하였는데, 줄거리에서 서술해 보기로 한다.

오카모토(岡本)에 사는 「나」는, 9월의 어느 날 저녁, 고토바인(後鳥羽院)의 별궁이 있었다고 하는 미나세강(水無瀬川)을 방문했다. 아마토(大和)시대의 그림같은 정취가 물씬 풍기는 요도가와(淀川)의 갈대와 물억새가 무성한 모래섬으로 건너가 『마스카가미(増鏡)』『유녀기(遊女記)』의 세계를 떠올리고, 달을 바라보며 기분 좋게 술에 취해 한시를 읊으며, 유녀가 왕래했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이 달맞이를 즐기고 있는 남자가 있음을 알았다. 50세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지금부터 40여 년 전의 옛날, 자신이 일곱 살 내지 여덟 살 때부터 십오야의 밤이면 매년 아버지를 따라 오구라이케(巨椋の池)⁸⁾ 부근에서, 오유사마(お遊さま)의 달맞이 연회를 엿보러 갔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이야기는 한층 더 거슬러 올라가 아버지와 오유사마의 만남으로부터 전개된다. 남자의 아버지 신노스케는 센바(船場)⁹⁾의 舊家의 장녀이자 미망인이었던 아름답고 기품있는 오유사마에게 첫눈에 반하여 결혼을 신청했지만 오유사마에게는 아이가 있어 시집에서 나갈 수 없었다. 오유사마를 포기할 수 없었던 신노스케에게 오유사마의 여동생 시즈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받아들인다. 신노스케는 오유사마 이외의 여성을 아내로 데려올 생각은 없었지만, 시즈를 아내로 받아들이면 앞으로도 오유사마를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유사마와 만날 수 없다는 점에 고민하다가 결국 오유사마의 말에 떠밀려 시즈를 맞이한다. 어쩔 수 없이 시즈를 아내로 삼은 신노스케와 언니의 속마음을 찰지하고 있었던 시즈는 “나는 평생 걸모양뿐인 부부라도 좋으니 언니를 행복하게 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주 서로를 찾아가 기묘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했다. 셋이서 행동을 같이 하게 되어도 신노스케와 오유사마가 맺어지는 일은 없었다. 호적상으로는나 육체적으로는 신노스케는 오유사마와 직접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하고 있었던 오유사마와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생활도 오유사마의 아들의 병사 후, 오유사마와의 재혼을 원하는 인물이 등장하자 이것을 계기로 끝을 맺는다. 오유사마가 재혼해 버리면 지금처럼 만날 수 없게 되는 신노스케는 동반자살을 결심하기도 하지만, 오유사마가 오구라노이케의

8) 교토시(京都市) 후시미구(伏見区)·우지시(宇治市)·쿠세군(久世郡)쿠미야마초(久御山)에 걸쳐 있는 연못

9) 오사카시(大阪市) 주오구(中央区)의 상업지역.

저택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죽기보다 즐겁다고 말하고 오유사마에게 재혼하기를 재촉한다. 이윽고 오유사마가 다른 집에 시집간 후, 진정한 부부가 된 아버지와 시즈의 사이에 생긴 자신(남자)은 아버지와 오유사마의 추억에 잠기기 위해서 매년 달구경을 온다고 한다. 그리고 남자는 어느새 달빛에 녹아들듯이 사라져 버렸다.(밑줄 인용자)

줄거리에서 밑줄 친 9월의 어느 날 저녁은 이야기 내용의 현시점이다. 그리고 50세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지금부터 40여 년 전의 옛날, 자신이 일곱 살 내지 여덟 살 때부터 십오야의 밤이면 매년 아버지를 따라 오구라이케(巨椋の池) 부근에서, 오유사마의 달맞이 연회를 엿보러 갔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이야기는 현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되돌아보고 말하는 후설법을 취하고 있다. 후설법에는 이야기 내용의 시간의 출발점보다 이전의 사항을 되돌아보고 말하는 외적 후설법¹⁰⁾과, 이야기 내용의 시간 내의 사항을 되돌아보고 말하는 내적(內的)후설법¹¹⁾이 있다.

이야기는 한층 더 거슬러 올라가 아버지와 오유사마의 만남으로부터 전개되므로 외적 후설법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2.2 휴지법(休止法)과 정경법(情景法)¹²⁾

여기에서는, ‘이야기 내용’의 사건이 진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과 ‘이야기 언설’의 진행에 필요로 되는 시간(즉, 읽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자. 기행문의 형식을 도입해 시작된 『아시가리』에서는 ‘나’라고 하는 주인공은, 9월의 어느 날 저녁, 고토바인(後鳥羽院)의 별궁이 있었다고 하는 미나세강(水無瀬川)을 방문했다. 야마토(大和)시대의 그림같은 정취가 물씬 풍기는 요도가와(淀川)의 갈대와 물억새가 무성한 모래섬으로 건너가 『마스카가미(増鏡)』 『유녀기(遊女記)』의 세계를 떠올리고, 달을 바라보며 기분 좋게 술에 취해 한시를 읊으며, 유녀가 왕래했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달맞이를 즐기고 있는 남자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나’가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 미나세강의 역사적 사실 설명, 풍경묘사와 지형묘사가 눈에 띈다.

특히 사건이 아니라 풍경과 자연묘사 부분은 시간이 완전히 정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건 진행에 필요한 시간의 속도는 제로이며, 물론 관찰하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시간은 멈춰있는

10) 상계서, pp.250-253

11) 상계서, pp.253-255

12) 상계서, pp.255-258

것 같아서, 주넷이 말하는 휴지법(休止法)을 적용할 수 있다.

‘나’가 남자와 만나고 나서 아버지와 오유사마의 이야기는 낡은 「ござります調」의 회화문이 계속 된다. 사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내용적으로 이야기를 건너뛰고 생략하거나 빠른 속도로 요약해 서술하는 기본적인 서술인 생략법이나 요약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화문이어서 이야기 내용과 이야기 언설은 리얼 스피드로 진행되는 정경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가리의 특징의 하나인 대화가 많다고 하는 문체는 시간의 템포가 느리고, 이런 정경법을 사용함으로써 오유사마의 의젓하고 느긋한 생활스타일의 표현, 또한 정지되어 있는 시간의 흐름이 매우 느리게 느껴지게 하는 작용도 하고 있다. 아름답고 늙지 않은 오유사마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묘사이며, 효과적이라고도 생각하게 한다.

3. 환상적인 현상을 출현시키는 시간과 장소

3.1 고토바인의 별궁이 있었던 유적지

『아시가리』의 환상적 이야기는 이상한 현상을 출현시키는 <때>로서의 시대, 계절, 하루 동안의 시간과 <장소>로서 지방·지역, 지형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문 속에서 인용해 보자.

「내가 아직 오카모토에 살고 있었던 어느 해 9월의 일이었다.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저녁 때라고는 해도 3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부터 그 근처를 걷고 싶었다. 멀리까지 가기에 는 시간이 늦었고 가까운 곳은 대개 알고 있었으니, 어딘가 두세 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는 멋진 산책지로서 보통 사람들이 잘 생각할 수 없는 잊혀진 장소는 없을까 하고 궁리하다가 언제부턴가 미나세의 궁에 한번 가 보자고 했으나 그만 기회가 없어서 지나쳤던 사실이 생각났다. 그 미나세(水無勢)의 궁이란 『마스카가미(増鏡)』의 「덤불 아래」에 “도바덴(鳥羽殿) 시라카와덴(白河殿)등도 수리하도록 하여 언제든지 오갈 수 있도록 하시라. 또한 미나세리는 곳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흥미로운 궁실(宮室)을 만들어...”(중략)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고토바인의 별궁이 있던 옛터를 말한다. 내가 옛날에 처음으로 『마스카가미』를 읽었을 때부터 이 미나세의 도움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산기슭에 안개가 뿌연 미나세강/ 가을이구나 하며, 어젯밤 생각에 잠겼노라.” 나는 고토바인의 이 노래를 좋아했다.」(텍스트 227쪽)

『아시거리』의 ‘나’가 말하고 있는 현시점은 쇼와 3년 전후로 보여진다. 9월의 저녁때, 산책지로서 선택한 것은 미나세라는 곳으로 고토바인의 별궁이 있던 옛 유적지이다. 미나세는 797년 칸무천황이 사냥놀이터로서 즐겨 이용했던 곳이며, 후에 경승지로 알려졌다.

고토바인(1180~1239)은 와카의 명수로 『신고킨슈(新古今集)』를 편찬시켰는데 찬가(撰歌)에 있어서는 스스로도 관여하고, 또한 추가·삭제 작업은 오키(隱岐) 유배 후에도 계속되었다¹³⁾고 한다. 이와 같이 역사적 인물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을 작가가 선택한 것은 『아시거리』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의 환상적인 가공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왕조시대의 경승지(景勝地), 그것도 정취있는 미나세야말로 꿈같은 요소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현재의 ‘나’는 고토바인의 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서 이쪽 지형의 특징에 대한 묘사를 분석해 보자.

3.2 지형의 특징

「동쪽으로 교토를 중심으로 한 아마시로(山城)의 평야와 서쪽으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셋카센(攝河泉)의 평야가 이곳에서 좁혀지고 있고, 그 사이로 한 줄기 대하(大河)가 흐른다. 그렇다면, 교토와 오사카는 요도가와 강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기후 풍토는 이곳을 경계로 해서 확연히 달라진다. 오사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토에 비가 오고 있어도 아마자키(山崎)에서부터 서쪽은 맑게 개어있는 일이 있어서, 겨울에 기차가 아마자키를 지나면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중략) 나는 아시로의 지역안을 벗어나 가도의 뒤쪽 좁은 길을 따라 다시 미나세 강가로 되돌아가 둑 위로 올라가 보았다. 강 위쪽 산의 모습, 강의 경치는 칠백 년의 세월 동안 다소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고토바인의 시를 배견하고 몰래 가슴에 품었던 것과 지금 눈앞에서 보는 풍광과는 어긋비슷했다. 나는 대체로 이런 경치일 것이라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중략) 별궁이 차지하고 있었던 뛰어난 경승지의 위치가 확실해졌다. 천황의 궁궐은 남쪽으로 요도가와 강, 동쪽으로 미나세 강, 이 두 강이 교차하는 한 모퉁이에 몇 만평이라고 하는 장대한 정원에 둘러싸여 있었다.」(텍스트 230쪽)

여기서 “교토를 중심으로 한 아마시로(山城)의 평야와 서쪽으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셋카센(攝河泉)의 평야가 이곳에서 좁혀지고 있고, 그 사이로 한 줄기 대하(大河)가 흐른다. 그렇다면, 교토와 오사카와는 요도가와 강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기후 풍토는 이곳을 경계로 해서 확연히 달라진다.”고 서술했듯이, 미나세 주변은 교토와 오사카의 경계선이면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시간과 공간에 이변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나타내고

13) 日本文学地名大辞典刊行会編(1999) 『日本文学地名大辞典—詩歌篇下卷』遊子館、p.611

있다.

야마시로의 평야와 셋카센의 평야가 비좁아지는, 즉 공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장소를 설정하여, 이곳에서 보름달이 뜨는 날 밤, 떨어진 시간과 시간, 공간과 공간이 연결되는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난다.

다니자키가 이번이 일어나는 이 지형을 선택한 것도 앞으로 서술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야기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불가사의하고 환상적인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적절한 장소이며, 복선의 효과를 더하고 있다.

3.3 강의 특징

「거슬러 올라가 보니 과연 강 건너에 섬이 있다. 그 섬의 강 아래쪽 끝은 바로 눈앞에서 끝났음을 알 수 있는데, 강 위쪽은 아득하고 희미한 빛의 끝에 사그라져 들면서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듯 보인다. 어쩌면 이 섬은 큰 강 속에 고립되어 있는 섬이 아니라 여기서 가쓰라가와와 요도가와의 본류(本流)에 합쳐지는 뾰족한 끝이 아닌가. 어땠든 기즈(木津), 우지(宇治), 가모(加茂), 가쓰라(桂)의 제도(諸島)가 이 근방에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야마시로(山城), 오미(近江), 가와치(河内), 이가(伊賀), 단바(丹波) 등 5개 지역의 강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다.(중략) 나는 아직 얼마간 남아 있던 술에 미련을 느껴 한 모금 마시고는 쓰고, 한 모금 마시고 쓰기도 했는데, 마지막 한 방울을 다 마셔버리자 병을 강 쪽으로 던져 버렸다. 그 때 근처 갈대 잎이 사각사각 흔들리는 기색이 있어서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니, 갈대 사이에 꼭 나의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사내가 거기에 있었다.」(텍스트 234-235쪽)

강이라는 것은 흐르는 시간을 의미하고, 요도가와의 섬에는 기즈(木津), 우지(宇治), 가모(加茂), 가쓰라(桂)의 제도(諸島)가 이 근방에서 하나가 되거나 야마시로(山城), 오미(近江), 가와치(河内), 이가(伊賀), 단바(丹波) 등 5개 지역의 강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쓰여 있듯이 이곳을 곧 시간이 연결되는 공간을 의미하고 있다. 강의 특징을 서술한 후에 기묘하게 등장하는 남자의 출현이 이어진다. 이처럼 신기한 장소에서 이상한 남자를 만나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 되도록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4 십오야의 보름달

이 작품에는 십오야의 보름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희고 빛나는 달의 이미지는 시대배경이나 사람이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아시아 각국에서는 해나 달·별을 국기의 도안으

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천황의 공명(公明)·위대한 은덕(恩德)을 일월(日月)의 밝음에 비유하듯이 예로부터 달은 태양과 함께 왕권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달’을 신성한 것으로서 특수시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제도적인 관념은, 빛나는 것에 대한 경외라는 고대(古代)적 감정에 유래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금기(禁忌)의 대상으로서의 달=“달의 얼굴을 보는 것은 꺼려해야 하는 일”¹⁴⁾이라는 뿌리 깊은 미신이 존재한다. 고대인들에게는 이 세상은 덧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또한 헤이안시대에 이르면, 아미타불의 빛나고 원만한 존안(尊顔)이 맑은 가을 날의 보름달에 비유되어 깨달음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¹⁵⁾고 한다.

또 고대부터 사랑 이야기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것도 달이다. 만남은 달밤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했으므로 달은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운 연인의 모습을 품고 있는 듯 여겨졌다. 잃어버린 사랑을 한탄하며 추억하기도 하고, 달에 연인의 모습을 오버랩시키는 전통적 발상 또한 이 작품에 잘 녹아 있다.

환상적이고도 현실 같지 않은 십오야의 황홀한 밤, ‘남자’는 보고 싶은 아름다운 오유사미를 그리워하며 울타리 틈새로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다. 연인의 모습은 달빛을 받아 한층 더 빛나듯 사랑의 마음도 깊어져 간다. 만나고 싶은 오유사미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녀를 만나기를 바라는 염원도 달에게 충분히 담겨 있을 것이다. 달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골고루 그 빛을 비추고 있으니, 떠나 있는 오유사마에게 연정(戀情)을 전해 달라는 바람도 있다고 엿볼 수 있다. 달빛에 옛날을 회상하며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달빛에 의해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더 배증하여 안타까움도 더해갈 것이다. 이는 오유사마와 신노스케, 또 그의 아들인 남자는 절대로 맺어질 수 없는 운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5 오유사마의 얼굴 - 구름과 같은 존재

다니자키는 여인의 얼굴에 대해서는 발 묘사에 비해 그다지 빈번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얼굴이지만, 작가는 일부러 그 묘사를 회피하게 하여 전형적인 물개성적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일종의 인간세계를 떠난 어렴풋한 흰색인 것이다.

도널드 킨은 「다니자키 문학의 다양성」¹⁶⁾에서, “다니자키 문학에서는 실로 흰색이 여성미

14) 渡辺秀夫(1995)『詩歌の森』大修館書店、pp.37-41

15) 상계서, p.39

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라고 몇 번이나 말하고 있다. 작품 속의 남성의 역할은, 이 지상의 존재라고 생각되지 않는 여성을 숭배해 여성을 한 번 만족시킨 후 버려지는 운명에 있다. 마치 여왕벌의 노리개로서 여성을 섬기는 존재이다. 『아시가리』의 신노스케는 오유사마에 대한 노예적 헌신 때문에, 육체 관계를 가질 생각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관계하는 것조차 피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본문에서 오유사마의 얼굴 묘사 부분을 인용해 보자.

「오유사마라는 사람은, 사진을 보면 풍만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동인(童顔)처럼 얼굴생김새가 둥근 형인데,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이목구비뿐이라면 이 정도의 미인은 적지 않지만, 오유사마의 얼굴에는 뭔가 흐릿하게 연기 같은 것이 한 겹 있었다. 얼굴 생김새가 눈에서도, 코에서도, 입에서도, 얇은 것을 한 장 쓴 것처럼 어렴풋하여 명확한 선(線)이 없다. 한참 응시하고 있으면 이쪽의 눈앞이 몽롱해지는 듯하다. 그 사람의 몸 주위에만 안개가 나부끼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옛날 책에 ‘기품있고 세련되었다’라는 말이 있는 것은 결국 이러한 얼굴을 말하는 것이다. 오유사마의 얼굴에 있는 것이므로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는 법입니다.

대체로 동인(童顔)인 사람은 살림에 찌들지 않으면 비교적 젊음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만, 오유사마는 16,7때부터 46,7이 될 때까지 조금도 윤곽에 변화가 없어서 언제 보아도 딸아이 같은 풋풋한 얼굴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고(중략) 오래된 이즈쿠라(泉蔵)인형(17)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떠오를 것 같은, 상쾌하면서도 고전(古典) 냄새가 나는 느낌, 깊숙하고 풍부한 구름 위의 귀부인이라든가, 상공마마 등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한 느낌이 어딘지 오유사마의 얼굴 위에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텍스트 243-244쪽)

여기서 오유사마의 얼굴은 ‘연기가 나고 있는 것’ ‘얇은 천을 한 장 쓰고 있는 듯 어렴풋한’ ‘안개가 낀 듯한’ ‘구름 위의 귀부인’ 등 신비스럽게 묘사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구름의 이미지는 활력이 용솨음치는 초월적·영적(靈的)인 존재로서 토속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현인(賢人)·은자(隱者)의 발아래에는 항상 오색(五色) 구름이 있다.’¹⁸⁾라고 했다.

오유사마를 현실의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처럼 숭배하고 있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이 사랑은 맺어질 수 없는 운명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신비한 면을 동반하고, 저편 세계에 있는 오유사마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구름에

16) ドナルド・キーン(1967) 「谷崎文学の多様性」『日本の文学—谷崎潤一郎(三)』中央公論社, pp.546-547
17) 황실이나 대신들이 다이묘에게 하사하는 증답품(贈答品)의 하나로, 인형의 얼굴이 천진하면서도 기품이 있으며 백분을 칠하고 있다.
18) 상계서, pp.42-43

비유하며 끊임없이 동경의 마음을 품게 한다. 달과 구름은 천상에 가까운 존재이고, 게다가 ‘연기가 나고 있는 것’ ‘얇은 천을 한 장 쓰고 있는 듯 어렴풋한’ ‘안개’ 등의 표현에서, 양쪽 모두 현실성이 없는 신비로운 오유사마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에 비해 남성상은, 성격은 소극적이고 의지도 박약해 여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타입이다. 남성은 여성상의 거울로서, 혹은 노예로서만 인정되었다. 다니자키 문학중의 특징적인 남성은 자신이 찬미하는 여성에게 학대받는 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하는 못난이이며, 이러한 성격은 주인공이 옛날 사람이든 현대의 사람이든 공통된 것이다. 도널드 킨은, 이 마조히스틱한 여성 숭배, 남자를 구제할 수 없는 노예로 폄하하는 악마적 여성에 대한 찬미는 “전통적인 일본 문학의 계승은 결코 아니다. 『아시가리』의 신노스케가 하인과 같이 여자를 섬겨 최대의 만족을 얻고 있는 모습 등은 서양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¹⁹⁾ 라고 말했듯이, 『아시가리』의 오유사마는 잔인한 사람은 결코 아니지만, 그녀의 노예에 대해서는 매사에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야마모토 겐키치(山本健吉)도 “『아시가리』의 오유사마가 인간세계에서 동떨어진 미인임을 언급하면서 그 정신성의 무시에 대해 『아시가리』의 오유사마는 ‘영원히 유일한 여자’로 묘사하고 있다. 신체의 묘사도 거의 비인간적일 정도로 이 세상을 초월한 아름다움이다. 오유사마의 정신적인 것은 특히 무시하고 말살하고, 그녀의 외부의 아름다움은 비정할 정도로 다듬어지고 있다. 남자는 오유사마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서 집사(執事)나 가령(家令)과 같은 입장에서 오유사마를 섬기고 있다. 그 도착(倒錯)한 남녀관계 속에서 오유사마의 완벽한 아름다움에 무릎 꿇는 남자도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²⁰⁾ 라며 분라쿠인형이나 이즈쿠라인형의 비인간적인 아름다움, 애완해야 할 ‘물건’으로서 아름다움, 거기에 작가는 꿰어 엮으려 절하는 대상을 찾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후 매년 그 곳에 달구경을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밤에도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라고 하자, 그렇습니다, 오늘 밤도 지금부터 외출하려는 참입니다, 지금도 십오야의 밤에 그 별장 뒤쪽으로 가서 울타리 사이로 들여다보니 오유사마가 거문고를 연주하시며 시녀에게 춤을 추게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옛날 일을 짐작하여 생각해 보면 이제 오유사마는 팔십 가까운 노인이 아니겠느냐고 물었는데, 그저 바람이 살랑살랑 풀잎을 스칠 뿐, 일면(一面)에 자라고 있었던 갈대도 보이지 않고 그 남자의 그림자도 어느새 달빛에 녹아들어간 듯 사라져 버렸다.」(텍스트 260쪽)

19) 상계서, p.43

20) 山本健吉(1996) 「人と文学」 『現代文学大系』18、筑摩書房、p.223

남자는 아버지가 오래 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여인인 오유사마의 모습을 보기 위해 매년 십오야이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연못가를 방황하면서 ‘어머니’ 기억의 위치에 있는 계모 오유사마의 모습을 각인시켜 갔다. 50이 다 된 지금도 십오야의 밤이면 그녀의 별장 뒤쪽에 와서 울타리 사이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계모 사모(思慕)구조에 부친이 자식에게 성(性)을 전달(21)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문 “갈대도 보이지 않고 그 남자의 그림자도 어느새 달빛에 녹아들어간 듯 사라져 버렸다.” 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화자인 ‘남자’가 불가사의하고 신비롭게 사라져 버리는 결말에서는 이탈로 칼비노가 언급한 ‘일상적 환상’의 측면을 볼 수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형체가 없고 포착 불가능한 환상과 같아서, 개인의 정신적, 추상적, 심리적 측면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환상’의 반영으로 보인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아시가리』라는 작품은 하나의 환상적이고 가공적인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때’와 ‘장소’의 설정에 치밀한 계산 하에 왕조시대의 경승지, 그것도 꿈같은 요소를 충분히 담고 있으며, 정취있는 미나세를 택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나’가 고토바인의 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가는 장면도 남자가 이야기하는 이상한 이야기의 세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무리없이 진행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미나세 주변의 지형이 교토와 오사카의 경계선이면서 연결되어 있는, 연결되면서도 동떨어져 있는 사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적 이변이 일어나는 장소인 ‘비좁게 움츠러들며’ 공간이 뒤틀리는 곳에서 십오야의 보름달이 뜬 밤, 동떨어진 시간과 시간, 장소와 장소가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불가사의한 이야기로의 전개를 예언한다. 그리고 흐르는 시간을 의미하는 강인 요도가와의 섬에는 기즈(木津), 우지(宇治), 가모(加茂), 가쓰라(桂)의 제도(諸島)가 이 근방에서 하나가 되거나 야마시로(山城), 오미(近江), 가와치(河内), 이가(伊賀), 단바(丹波) 등 5개 지역의 강이 여기에 모여 있다는 이곳은 곧 시간이 연결되는 공간이다. 여기서 이상한 남자를 만나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때」는 9월이며 보름달이 뜬 밤이다.

예로부터 달은 신성한 존재, 경외할 만한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고, 또 사랑 이야기에 반드시

21) たつみ都志(2001) 「母」『別冊国文学—谷崎潤一郎必携』学燈社, p.33

등장하는 달이 『아시거리』에서는 오유사마의 얼굴의 특징인 ‘연기가 나고 있는 것’ ‘얇은 천을 한 장 쓰고 있는 듯 어렴풋한 ‘안개’ ‘구름 위의 부안’ 등과 함께 현실성이 없는 신비스러운 면을 동반하고 있다. 저편 세계에 있는 오유사마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존재, 절대로 맺어질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름’ 등 별세계에 있는 오유사마에 대한 묘사는 느긋하고 여유 있는 생활 스타일이나 멈춰 있는 시간의 흐름을 매우 느리게 느끼게 하여 아름답고 늙지 않은 오유사마를 표현하는데 매우 뛰어난 묘사라고 생각된다.

소설의 마지막에 남자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결말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형체가 없고 포착 불가능한 환상과 같아서, 개인의 정신적, 추상적, 심리적 측면의 ‘일상적 환상’의 반영으로 추측된다.

『아시거리』에서 보여지는 ‘액자식 구조’나 ‘후설법’, ‘정경법’과 함께 ‘때’와 ‘장소’의 설정의 비밀, 달과 오유사마의 존재 등은 가공의 역사이야기이자 환상적인 작품을 완성하고자 하는 다니자키의 의도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参考文献】

- 安枝蓮(2005.01) 「『蘆刈』についての一考察-永遠の女性」『解釈』51(1・2)、解釈学会、pp.27-33
 たつみ都志(2001) 「母」『別冊国文学-谷崎潤一郎必携』学燈社、p.33
 谷崎潤一郎(1967) 『日本の文学25 谷崎潤一郎(三)』中央公論社、pp.227-260
 ドナルド・キーン(1967) 「谷崎文学の多様性」『日本の文学-谷崎潤一郎(三)』中央公論社、pp.42-43、pp.546-547
 ジェラルド・ジュネット著、花輪 光、和泉 涼一 訳(1985) 『物語のディスコース-方法論の試み』水声社、pp.247-260
 日本文学地名大辞典刊行会編(1999) 『日本文学地名大辞典-詩歌篇下巻』遊子館、p.611
 三嶋潤子(2008.01) 「谷崎潤一郎『蘆刈』の構造--古典回帰の内実」『国語国文』77(1)、中央図書出版社、pp.1-18
 渡辺秀夫(1995) 『詩歌の森』大修館書店、pp.37-41
 山本健吉(1996) 「人と文学」『現代文学大系』18、筑摩書房、p.223
 Chambers Anthony 著、鈴木淑美訳(2003.05) 「ひびきあうまぼろし--『蘆刈』と夢幻能の世界」『ユリイカ』35(8)、青土社、pp.208-218

논문투고일 : 2021년 12월 20일
 심사개시일 : 2022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22년 02월 14일
 2차 수정일 : 2022년 0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2월 22일

〈要旨〉

환상소설로서의 ‘나와 오유사마(お遊さま) 이야기’ 일고

이영희

본고에서는 『아시가리(蘆刈)』를 환상문학으로서 분석하고, 또 판타지성을 살리기 위한 장치로서 서술 방법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소설의 ‘때’와 ‘장소’ 설정에는, 반드시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이 작품은, 우선 구성에서 보면 기행문의 형식에서, 액자형식 구조를 도입하여, 1차 화자인 내 이야기 중에 우연히 만난 남자가 2차 이야기자로서 아버지와 오유사마의 이야기를 한다. 남자를 2차 화자로 사용한 것은 그가 페이지의 사람으로 현대와 거리감을 느끼게 하여 환상과 같은 이야기가 가능하도록 할 의도였을 것이다. 독자에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 또 실제로 오유사마를 만난 장본인인 그가 전함으로써 진짜다음과 감동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환상적인 현상을 출현시키는 ‘때’와 ‘장소’의 비밀을 알아보고, 설정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회자되는지를 주넷의 언설법에 관한 이론을 『아시가리』 구성에 적용해 본다. 이 작품을 말하는 순서와 ‘속도’에 따라 분류하고, 나아가 ‘때’로서의 시대, 계절, 하루 동안의 시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장소’로서 국가, 지방·지역, 지형 등을 통해 이 소설의 ‘방법’도 고찰한다. 『아시가리』에서 형체가 없고 포착 불가능한 환상과 같은 구성을 이탈로 칼비노가 언급한 ‘일상적 환상’이라는 이론을 적용시켜 분석해 본다.

A Study as a fantasy novel ‘The story of me and Oyusama’

Lee, Young-He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nalyze Ashigari as a fantasy literature and consider the description method as a device to save fantasy.

There is always a reason for the novel’s “time” and “place” setting, but first of all, this work introduces a frame-type structure in the form of a travel essay in the composition, so that a man I accidentally met in my story, the first speaker, tells the story of my father and Oyusama as a secondary story. The use of a man as a secondary speaker would have been intended to make him feel distant from modern times as a Meiji person, enabling fantasy-like stories. In this respect, there is also a prayer to make the reader believe that it is not a story made up, and he, the person who actually met Oyusama, adds real warmth and emotion by conveying it.

Let’s find out the secrets of ‘time’ and ‘place’ that appear fantastic phenomena, and look at the meaning of setting. So, how time is talked about is applied to the composition of Asigari, Junet’s theory of speech method. The work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order of speaking and speed, and furthermore, the novel’s “method” is considered through the country, region, and topography as a “place” along with the analysis of the times, seasons, and time of the day as “time”.

In Asigari, we analyze by applying the theory of “daily fantasy” mentioned by Italo Calvino by deviating from the same composition as a fantasy that has no shape and cannot be captured.